

부산지역 근대시기 석탑의 현황과 특징*

전 지 혜**

I. 머리말
II. 석탑 현황
III. 근대시기 석탑의 특징
IV. 맺음말

국문초록

한국의 石塔史는 신라의 정형석탑이 발생한 통일신라시대와 수량적으로 급증한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조선시대가 되면 崇儒抑佛 정책의 여파로 불교의 대표적인 조형물인 석탑의 건립도 급감하면서 그 수량은 대략 30여 기에 그친다. 이후 19세기부터 해방에 이르는 근대시기에도 석탑은 지속적으로 건립되어 130여 기를 헤아린다. 하지만 근대시기 석탑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 건립된 식민유산의 산물처럼 여겨져 ‘倭色’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왔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조차 제대로 없었던 것이 오늘날 학계의 현실이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 F-2022S1A5B5A17048138)

** 부경대학교 해양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747girl@hanmail.net

본고는 부산지역의 근대시기 석탑을 통해 한국 석탑사에서 도외시되어 왔던 근대시기에도 우리의 전통적인 석탑 造營은 연속성을 갖고 계승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부산은 최초의 개항장으로 개항 이후 일본불교 포교소가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며, 일제 식민지시기에 일본인의 밀집도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다. 근대시기 석탑의 수량도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 중 가장 많다. 이러한 요인은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근대시기 석탑의 표본으로서 그 추이를 살펴보기에 부산의 근대시기 석탑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지역 근대시기 석탑의 특징은 두 방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외부적으로 일본의 영향을 받은 측면은 개방성으로, 전통석탑의 계승 및 조선 석조물과의 교류로 인한 내부적인 측면은 고유성으로 구별하였다. 특히 고유성 부분에서는 능묘 석조물과의 친연성에 주목하였다.

◆ 주제어

석탑, 불탑, 부산, 근대, 범어사, 일본 석탑.

I. 머리말

한국 석탑사에서 연구가 집중된 시기는 신라의 정형양식 석탑이 발생하는 통일신라시대와 양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고려시대이다. 반면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석탑 건립의 감소와 함께 그 연구 역시 임진왜란을 전후한 전기를 벗어나지 않는다.¹⁾ 17세기부터 19세기의 조선후기로 편년되는 석탑은 10여 기를 헤아리며, 근래 한 편의 학위논문이 발표되었다.²⁾ 19세기 말부터 해방을 전후한 근대시기에 건립된 석탑에 관해서는 2020년 엄기표 선생의 연구 성과가 유일하다.³⁾ 최근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근대시기 석탑 연구는 본격화될 것이라 기대한다.

근대는 통상 朝日修好條規가 체결된 1876년부터 해방 시점인 1945년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 민족의 암흑기인 일제강점기가 이에 포함되며, 불교사적으로는 조선시대의 崇儒抑佛 정책에 따른 여파 속에서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았던 시기이다. 게다가 근대시기에 건립된 석탑은 현대와 큰 시차를 두지 않기 때문에 건립 시기의 경계가 모호한 사례도 많다. 따라서 당시 건립된 석탑은 그 가치를 평가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고, 전통석탑과의 계보와는 격리된 채 별개의 조형물처럼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문화유산이 갖은 논란과 함께 그 정체성에 대해 아직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통한다. 필자가 현재까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근대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탑은 대략 130여

-
- 1) 정영호, 「조선시대 석탑의 연구시론」, 『한국불교미술사론』, 민족사, 1987; 「조선시대의 佛塔 연구」, 『한국불교의 좌표』, 불교시대사, 1997; 「高麗와 朝鮮時代の 塔婆」, 『박물관기요』25, 단국대학교박물관, 2013; 이순영, 「조선 초기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에 관한 연구」, 『아시아문화연구』18,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엄기표, 「朝鮮時代の 塔婆」, 『박물관기요』25, 단국대학교박물관, 2013; 「妙香山 普賢寺 八角 13 層 石塔에 대한 고찰」, 『동악미술사학』17, 동악미술사학회, 2015; 송지현, 「朝鮮前期 石塔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2) 방보인, 「조선 후기 석탑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 3) 엄기표, 「韓國 近代期 石塔의 建立 現況과 特徵」, 『문화사학』54, 한국문화사학회, 2020.

기4)에 이른다. 석탑의 수량이 30여 기에 불과한 조선시대에 비해 개항과 도성 출입금지 해제에 따른 불교의 근대화와 중흥 속에서 근대시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석탑이 건립되었다. 즉, 근대시기로 편년되는 석탑을 왜색이라는 이름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그 속에 담긴 우리 고유의 석탑 문화마저 상실하게 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실제 왜색으로 오인되고 있는 사례도 상당하다.

본고는 부산지역의 근대시기 석탑을 통해 한국 석탑사에서 도외시되어 왔던 근대시기에도 우리의 전통적인 석탑 造營은 연속성을 갖고 계승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부산지역을 연구 범위로 선정한 것은 부산은 전근대시기에는 倭館이, 개항 이후에는 일본인 專管居留地가 설치되었고, 식민지시기에는 일본인 거주 밀집도가 한반도에 가장 높았던 지역으로 조선과 일본 문화가 공존한 역사적 장소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또한 1877년 일본 근대불교 최초의 조선 포교소로 淨土眞宗 本願寺出張所가 설립되었다.⁵⁾ 근대시기 석탑의 수량도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 중 가장 많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근대시기 석탑의 표본으로서 그 추이를 살펴보기에 부산은 적합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 ‘부산’이라는 지역은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석탑의 건립연대를 근대시기로 지칭함에 있어 ‘근대’는 1876~1945년으로 설정하였다. II장에서 부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석탑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겠다. III장에서는 부산지역 근대시기 석탑의 특징을 개방성과 고유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근대시기 석탑을 주목함에 있어 실제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근대시기 석탑에 대한 최종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삼아야 함이 당연하겠으나, 현재 필자는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기

4) 이 중 국가유산으로 지정 및 등록된 것은 7기로 다음과 같다. 서울 불교재증원 오층석탑(1923년경, 문화유산자료), 청도 신문사 오층석탑(1924년, 국가등록문화유산), 예산 수덕사 칠층석탑(1931년, 문화유산자료), 남원 창덕암 삼층석탑(1933년, 문화유산자료), 함천 해인사 용성선사 승탑(1941년, 유형문화유산), 당진 영탑사 칠층석탑(1911년 중수, 문화유산자료), 김천 청암사 다층석탑(문화유산자료).

5) 김윤환 외1, 「해양도시 부산의 일본인지역사회 형성과 종교」, 『해양도시문화교섭학』11,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4, 125쪽, 154쪽.

때문에 다소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 석탑사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근대시기에도 우리의 전통적인 석탑 조영은 연속성을 갖고 계승되고 있었음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II. 석탑 현황

〈표1〉 부산지역 석탑 현황

분류	명칭	현 소재지	건립시기	원위치 ⁶⁾
전 통 석 탑	범어사 삼층석탑	금정구(금정산)	9세기경	●
	범어사 고려삼층석탑	금정구(금정산)	고려초	●
	원효암 동편삼층석탑	금정구(금정산)	나말여초	●
	원효암 서편삼층석탑	금정구(금정산)	나말여초	●
	만덕사지 삼층석탑	남구	나말여초	●북구 (금정산)
	구룡사 오층석탑	북구(금정산)	여말조초	●
	선암사 석탑재	부산진구	고려	●
	석탑사 석탑재	기장군	통신	●
	범방동 삼층석탑	강서구	고려	●
	부산시립박물관 옥개석 3점	남구	조선	?
	부산시립박물관 사암석탑재	남구	고려	?
	화승원 삼층석탑	금정구(금정산)	통신	?
	고려오층석탑 ⁷⁾	동래구(온천동)	고려	?
	동래별장 삼층석탑	동래구(온천동)	고려~조선	?
	해운정사 삼층석탑	해운대구	고려	경주
	대곡사지 오층석탑	금정구	고려	울산
	감로사지 석탑재	서구	고려	김해
	상천리사지 삼층석탑	서구	고려~조선	합천
	동성로 오층석탑	서구	고려~조선	대구

6) 부산지역을 원위치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부산지역 안에서 석탑이 이진된 사례도 ‘원위치’에 해당한다.

7) 석탑의 소유주가 2015년 경기도로 이사를 가면서 반출되었다.

근대 시기 석탑	금강공원 십삼층석탑(후락탑)	동래구(온천동 금정산)	1933년	●
	금정사 칠층석탑(용화탑)	동래구(온천동 금정산)	1933년	●
	범어사 칠층석탑(석가여래사리탑)	금정구(금정산)	1937년	●
	동래별장 별관 실내 십삼층석탑	동래구(온천동)	1920~1930년대	●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인조석재	동래구(온천동)	1930년대	●
	동래별장 오층석탑 2기	동래구(온천동)	1920~1930년대	?
	부산시립박물관 오층석탑	남구	근대	?동래구 (온천동)
	영화사 오층석탑	영도	근대	?
	중구문화원 오층석탑	중구	1930년대	?
	동아대학교 아미동 오층석탑	서구	근대	?
	연등사 오층석탑	동구	근대	?
	구덕문화공원 오층석탑 2기	서구	근대	?
	경성대학교 석탑 2기 및 석탑재	남구	근대(현대?)	?
	대성사 묘지석 석탑	서구	현대	●
	불곡사 칠층석탑	남구	1950년대?/70년대?	●

현재 부산지역에서 소재가 확인되는 석탑은 일부 석탑재 포함 대략 38여 기이다<표1>. 이 중에서 근대 이전 즉, 전통석탑(이하 편의상 근대 이전의 석탑을 지칭)은 20여 기, 근대시기 석탑은 18여 기로, 타 지역에 비해 근대시기 석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근대시기 석탑은 불교 석조물로 사찰 경내에 건립된 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영향에 따라 개인 정원의 조경용으로도 건립되었다. 게다가 본래 사찰의 불탑으로 조성되었으나 조경용으로 활용된 석탑도 다수이기 때문에 원위치가 불분명한 사례가 많다. 부산지역은 전통석탑 역시 절반가량만 부산이 원위치에 해당한다. 해방 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부산에 편입된 사례와 일부 석탑재만 남아 있는 사례, 원위치가 불분명한 사례를 제외하면 부산지역을 원위치로 삼는 전통석탑은 金井山을 중심으로 범어사 삼층석탑과 고려삼층석탑, 원효암 동서편삼층석탑, 그리고 만덕사지 삼층석탑, 구룡사 오층석탑에 불과하다. 근대시기 석탑의 분포도 동래구 온천동과 금정산 일대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부산지역 석탑은 그 분포가 금정산과 온천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원위치가 아닌 석탑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 근대시기 석탑의 비중이 높다는 점으로 그 현황을 요약할 수 있다.

<표2> 부산지역 전통석탑

					
범어사 삼층석탑	범어사 고려삼층석탑	원효암 동편삼층석탑	만덕사지 삼층석탑	구룡사 오층석탑	선암사 석탑재
					
석탑사 석탑재	범방동 삼층석탑	부산박물관 육개석	부산박물관 사암석탑	화승원 삼층석탑 ⁸⁾	고려오층석탑 ⁹⁾
					
동래별장 삼층석탑 ¹⁰⁾	해운정사 삼층석탑	대곡사지 오층석탑	감로사지 석탑재	상원리사지 삼층석탑	동성로 오층석탑

전통석탑부터 개략적으로 살펴보자면<표2>, 부산지역 석탑 중 가장 오래된 석탑은 9세기로 편년되는 범어사 삼층석탑으로, 일제강점기 때 변형된 삼층기단은 2010년 이중기단으로 회복되었다. 기단부는 총 15매의 석재로 결구되었고, 상하 중석은 탕주가 생략된 대신 상층은 1구, 하층은 2구의 안상이 새겨졌으며, 하층기단 갑석 상부는 호각형 받침, 상층기단 갑석 상하부에는 각각 각형의 받침과 부연이 조출되었다. 탑신부

8) ‘국립문화유산연구원’

9) ‘국립문화유산연구원’

10) ‘옛님의 숨결, 그 정취를 찾아’(https://cafe.daum.net/moonhawje)’

는 옥개석과 탑신이 모두 개별 석재로 옥개받침은 4단이며, 옥개석 상부에 2단의 각형받침까지 조출되어 신라 정형석탑의 표준을 따른다.¹¹⁾

범어사 경내 휴휴정사 앞에 위치했으나 2010년 분실 이후 약사전 옆에 재설치된 일명 고려삼층석탑은 상하 탱주 1:1주의 이중기단이며, 지대석과 하층기단 중석은 동일석으로 4매, 상층기단 중석 역시 4매, 상하층 갑석은 각각 1매의 석재가 사용되었다. 옥개받침은 3단이며, 현재 2023년 개관한 정보박물관 야외로 이견되었다. 산내 암자인 원효암 동서편삼층석탑은 나말여초로 편년되는 정형석탑으로, 부재의 유실은 있지만 이중기단의 삼층석탑이다. 금정산 줄기 上鶴山 기슭에서 1979년 부산시립박물관 야외전시관으로 이견된 만덕사지 삼층석탑은 나말여초인 10세기로 추정되는 단층기단 석탑이다.

이들 총 5기의 석탑은 모두 금정산 일대에 위치한다. 부산지역의 전통석탑은 이들을 제외하고는 원위치가 불분명하거나 부재 유실이 심각하여 원형을 짐작하기 힘든 일부 석탑재만 남아있는 경우가 다수이다. 다만 금정산의 서쪽 끝자락인 義城山 중턱에 위치한 구룡사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다양한 석조물과 함께 오층석탑 한 기가 있다. 석탑은 龜浦倭城 아래의 석조약사여래대불입상 앞에 자리하며, 상하 탱주 1:2주의 이중기단의 오층석탑으로 고려시대 정형석탑의 특징을 보인다. 경내 千佛聖殿 안의 佛碑像의 명문 중 ‘至元三年丁丑(1337)’을 제작연대로 참고하여,¹²⁾ 이 석탑 역시 잠정적으로 고려말로 편년해 두고자 한다. 선암사에는 나말여초로 편년되는 3매의 옥개석이 남아있으며, 부산지역에서 가장 큰 대형석탑으로 추정되는 석탑사 석탑재의 연대는 통일신라로 보고되었다.¹³⁾

부산시립박물관 야외전시관에는 최우직씨가 기증한 옥개석 1매와 수

11)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남도의 석탑Ⅲ』, 2018, 91~92쪽.

12) 1984년 세운 사적비에 따르면 사찰은 1981년 선희 스님에 의해 중창되었다. 석등, 석불 등 다양한 석조물이 전각 내부에 안치되어 있으며, 현지 답사 중 불비상에 새겨진 명문을 확인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진위 여부와 편년을 분명히 판단하기 곤란하다.

13) 조원영, 「기장군 정관면 석탑사 탑재의 형식 분석」, 『항도부산』27,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1, 355~356쪽.

미초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옥개석 2매가 놓여 있으며, 안내판에는 건립연대를 조선시대로 소개하고 있다. 내부 전시실에는 해운대 인근 호텔 정원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하는 경주국립박물관 소장품인 사암석탑재가 고려시대 석탑으로 안내되어 있다. 하지만 이 사암석탑재는 일반 석탑이기보다는 석등부재로 추정되므로, 석탑으로 분류하기 곤란하다. 현재 개인 별장인 화승원에 위치한 삼층석탑은 원위치가 불분명하며, 2015년 경기도 여주시로 이 건된 동래구 온천동 고려오층석탑은 중구 대청동의 일본인 福田増兵衛의 별장 向陽園에 있던 것을 1957년 온천동으로 반출한 것으로 역시 원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¹⁴⁾

근대시기에 건립된 석탑에 대해 살펴보겠다. 부산은 조선의 첫 개항장이자 일제 식민지시기 서울 다음으로 일본인이 가장 많이 거주했으며, 실제 일본인 거주 밀도는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¹⁵⁾ 불교사적으로는 개항 이후 그다음 해인 1877년 奥村圓心이 정토진종 동본원사의 해외포교사로 파견되어 그해 11월 5일 本願寺出張所를 설립(1878년 12월 ‘大谷派本願寺釜山別院’으로 개칭)했다. 즉, 한반도에 세워진 일본불교의 최초 사찰로 현재 중구 大覺寺의 전신이다.¹⁶⁾ 일제강점기 일본 사찰 수는 대략 1,000여 개로, 경기권(서울) 181개, 그다음으로 경남권(부산) 161개이며, 지역별로는 서울(117개) 다음으로 부산(52개)이 많다.¹⁷⁾ 당시 조선 불교의 근대라는 변화에 일본의 영향은 피치 못할 상황이었고, 침체되었던 불교의 중흥기 속에서 불교 석조물의 건립도 시대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전제한다면 근대시기 석탑 역시 서울, 인천, 경기도권에 가장 많고,¹⁸⁾ 단일 지역으로는 서울 다음으로 부산에서 가장 많

14) 부산시사편찬위원회, 『釜山市史 第4卷』, 1991, 783~784쪽.

15) 홍순권, 『근대 도시와 지방권력』, 선인, 2010, 18쪽, 32쪽, 186쪽.

16) 최인택, 「개항기 오쿠무라 엔신(奥村圓心)의 조선포교 활동과 이동인」, 『부산의 도시 형성과 일본인들』, 선인, 2008, 43쪽.

17) 김태훈, 「〈조선총독부관보〉로 보는 일본계 종교 유입의 전제도」, 『공존의 인간학』4,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2020, 248~249쪽; 김경집, 「일제강점기 한국에 진출한 일본불교의 종파별 교세현황에 대한 연구」, 『보조사상』65, 보조사상연구원, 2023, 195쪽, 204쪽.

이 확인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전통석탑은 이와 달리 경상도, 그중에서도 경북에 월등하게 많이 소재하고 있다.

부산지역 근대시기 석탑은 연대가 다소 불분명한 사례와 일부 석탑재를 포함하여 18여 기가 확인된다. 특히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일본인 별장이나 숙박시설이 위치했던 동래구 온천동과 범어사가 있는 금정산을 중심으로 근대시기 석탑이 밀집되어 있다. 현 위치가 원소재지로 분명한 석탑은 금강공원 십삼층석탑, 동래별장 실내 십삼층석탑, 금정사 칠층석탑, 범어사 칠층석탑,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석탑재이다.



〈사진1〉
금강공원
십삼층석탑

〈사진2〉
동래별장
오층석탑

〈사진3〉
구덕문화공원
오층석탑 2기

〈사진4〉
금정사
칠층석탑

〈사진5〉
수덕사
칠층석탑

일명 後樂塔으로 알려진 금강공원 십삼층석탑은 초층 탑신 명문에 따르면 東原嘉次郎이 조선에 도항한지 10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탑으로, 1933년 자신의 개인정원인 금강원에 세운 것이다. 순수하게 일본의 密簷塔에 해당한다<사진1>. 한국에서 일본의 밀첨탑으로는 후락탑과 동래별장 실내의 십삼층석탑이 유일하다.¹⁹⁾ 迫間房太郎의 별장²⁰⁾이었던 동

18) 근대시기 석탑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부산, 목포, 군산 등 개항 이후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도시와 항구도시에 많이 분포하며, 산간보다 도심에 위치한다(엄기표(2020), 앞의 글, 218쪽, 242쪽)

19) 1916년경 일본인 승려가 창건한 대구 중구 관음사에도 소형의 밀첨탑 석재가 일부 남아있으나 근대시기에 제작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우선 제외하였다.

20) 1880년에 도항한 하자마 후사타로의 별장으로 1912년에 이미 존재했으며, 1929년

래별장에는 실내의 십삼층 밀첨탑과 야외 정원에 근대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층석탑 2기<사진2>²¹⁾, 전통석탑에 해당하는 삼층석탑 1기를 비롯하여 승탑, 석등 등이 있다. 동일한 2기의 오층석탑은 근대시기에 가장 많이 건립된 양식²²⁾으로 1단 대석에 우주와 옥개받침이 생략된 탑신부, 최상부 옥개석과 단일석인 보주형 상륜으로 구성되었다. 구덕문화공원의 5층 석탑 2기 역시 동일한 양식인데 向右 석탑의 연대는 근대로 단정하기 이므로 논외로 두고 向左의 오층석탑은 동래별장 오층석탑과 흡사하지만 옥개석 상부에 탑신을 조출한 차이가 있다. 근대시기 석탑 중 초층 탑신을 제외한 나머지 탑신까지 모두 彫出式(옥개석 상부에 탑신을 조출,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 탑신과 옥개석이 개별 석재가 아닌 단일석으로 치석)으로 치석한 석탑으로는 유일하다<사진3>.²³⁾

금강공원 안에 위치한 금정사는 1924년 金牛 스님이 창건한 사찰로 1933년에 건립된 龍華塔인 칠층석탑이 있다<사진4>. 2단의 대석 기단 부에는 七星楔員인 조선인 시주자의 이름이, 초층 탑신에는 탑 이름과 건립연대, 제작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특히 ‘石工 叢芝容 外五人 設計者 須崎善人郎 林在春 楊相福’이라는 명문을 통해 석장에 중국인, 설계자로 일본인과 한국인이 참여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매 층 방향의 額面 조식을, 2층에는 화문, 3층은 여래상, 4층은 만자문, 5층은

옛 별장 옆에 새 건물을 신축했다.

- 21) 음식점으로 이용되고 있는 동래별장은 현재 휴업 중으로 실내 밀첨탑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다. 외부의 오층석탑 사진의 출처는 ‘옛님의 숨결, 그 정취를 찾아’(https://cafe.daum.net/moonhawje)’이다.
- 22) 필자가 답사 및 자료조사를 통해 확인한 근대시기 석탑 130여 기 중 100여 기를 대상으로 세분화했을 때, 대석기단 석탑이 72여 기이고 그중에서 우주와 옥개받침이 생략된 석탑이 50여 기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근대시기 석탑의 대표적인 양식은 대석기단에 우주와 옥개받침이 생략된 것이며, 이들은 대개 최상부 옥개석에 보주형 상륜이 조출되었다. 추후 현지답사가 모두 마무리가 되면 이와 관련한 자료를 도출할 예정이다.
- 23) 한국 석탑 중 탑신부에서 일부 옥개석과 탑신을 조출식(단일석)으로 제작한 석탑은 대략 60여 기가 확인되며, 건립연대는 나말여초가 대부분이다. 그중에서 초층 탑신을 제외한 나머지 각 층을 모두 조출식으로 제작한 석탑은 절반을 차지한다.

삼보문, 6층과 7층에는 8괘문 중 6괘문²⁴⁾을 새겼다. 3,5,7층 옥개석 모서리에는 철제의 용두형 장식을 삽입했는데, 상륜부에 해당하는 7층 옥개석 위에 익살스럽게 용의 눈을 새겼다. 거의 정육면체에 가까운 탑신을 적층한 것이 특징이며, 1931년 건립된 예산 수덕사 칠층석탑 역시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서는 현재와 달리 액면이 조식된 정육면체 탑신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5>²⁵⁾. 후락탑과 금정사 칠층석탑은 제작기법과 석재의 가공법은 다르지만 인근에서 채석한 동일한 석재를 사용하여 같은 해에 건립되었다.

범어사 칠층석탑은 「釋迦如來舍利塔碑」(1938.3)에 따르면 스리랑카승 達摩婆羅에게 받은 사리를 안치한 석탑으로 1936년 봄에 건립을 시작하여 1937년 겨울에 준공되었다<사진6>. 현재 연대가 밝혀진 근대시기 석탑은 40여 기에 이르는데, 이 중에서도 참여 장인이 확인된 사례는 10기로, 범어사 칠층석탑 역시 일본인 석장의 이름이 사리탑비에 새겨져 있다. 「世尊舍利塔移建功德碑」(1987.10)에 의하면 본래 위치는 대웅전 오른쪽, 즉 지장전 자리였으나 탑 건립과 관련하여 재앙이 있고 左右體用이 맞지 않다고 하여 智曉 주지(1982~1986) 때 左體, 즉 일주문 오른쪽으로 탑을 옮겼다고 한다.²⁶⁾ 2003년에 성보박물관이 개관하고, 2012년 박물관 앞쪽으로 문화광장이 조성되면서 현재 위치로 다시 옮겨졌다.

탑신부는 전통석탑을 잘 계승하고 있으나 삼층의 기단부는 다소 장식적인 측면에서 일부 근대시기의 영향이 반영되었다. 이때 근대는 일제강점기에 따른 일본의 영향과 조선 석조물의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상황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뒷장에서 살펴보겠다. 특히 근대시기 석탑은 기단부가 상당히 간략해지면서 과거 가구식의 이중기단이나 단층기단이

24) 8괘 중 震(벼락), 巽(바람)을 제외한 6괘가 새겨져 있다.

25)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소장품 번호:건판018068’. 현재 탑신은 상하부를 절단하여 액면이 우주처럼 보이도록 했다.

26) 윤석환, 「범어사의 가람배치 변화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34~35쪽; 『梵魚寺 大雄殿 實測調査 報告書』(부산시 금정구, 1995)에는 칠층석탑의 이권이 1984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닌 주로 1단이나 2단의 대석형 석재를 적층하는데 그친다. 가구식 기단부는 한반도에서 석탑의 탄생과 함께 조선시대까지 지속된 가장 보수적인 부분임에도 근대시기에는 이러한 기단부에 과격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탑신부에서는 우주의 생략과 옥개받침이 약화되거나 생략되는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범어사가 31교구 본산의 하나이자 영남의 3대 사찰이라는 寺格이 있었기 때문에 칠층석탑에서 전통을 고수한 가구식 기단의 채용이 가능했을 것이다.



〈사진6〉
범어사 칠층석탑



〈사진7〉
중구문화원
오층석탑



〈사진8〉
불곡사
칠층석탑



〈사진9〉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인조석제

현재는 철거되었으나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연못 인근에도 일본인이 제작한 석탑이 있었다<사진9>. 鳥居는 금강공원 일대의 10만 평을 농장으로 경영했는데 당시 고향 사람인 조각가 美莊三郎에게 의뢰하여 석탑, 불상, 독수리상 등을 설치했다고 한다.²⁷⁾ 아직 연못에 인조석으로 제작한 육각형 연화대석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과거 석탑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²⁸⁾ 불곡사 육각칠층석탑 역시 테라조 기법으로

27) 표용수, 『부산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선인, 2010, 149쪽; 인천광역시, 『근대 개항 도시의 불교문화 자취』, 2019, 151~152쪽.

28) <국제신문> 2008년 8월 7일 기사. 그 밖의 자료에서도 인조석으로 제작한 5m의

제작한 인조석 석탑이다<사진8>. 사찰은 1910년대 무렵 창건되었으며, 이후 1980년대에 부산문화회관 조성사업으로 현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석탑의 건립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나 대략 1950년대 전후로 추정된다.²⁹⁾ 일반 석재가 아닌 인조석을 활용한 두 석탑은 근대의 건축 시공법을 보여주는 독특한 사례에 속한다. 부산중구문화원은 立石良雄이 1927년 토지를 매입하여 1932~1934년경에 건립한 가옥으로, 1950년대에 증개축되었는데 현재 정원에 오층석탑이 있다<사진7>. 애초부터 일본인 가옥의 정원에 세워진 조경물 성격의 석탑으로 본다면 건립연대는 1930년대 초반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탑신은 우주가 생략되고 액면이 조식되었으며, 옥개석은 약한 2단의 옥개받침과 상부에는 1단 각형의 탑신받침이 조출되었다. 기단부는 복련 장식의 갑석을 중석에 올려 단층기단에 가깝고, 상륜부는 완전하게 일본석을 올려 놓았다.

영화사 오층석탑은 일제강점기에 창건된 사찰 안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원위치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근대시기 석탑으로 추정된다<사진10>. 기단부 일부는 매몰되었지만 대석기단이며, 탑신부에는 우주와 얇은 3단의 옥개받침이 조출되었다. 부산시립박물관 후원에 놓여있는 오층석탑은 1978년 동래구 온천동 천일각 대표 최우직씨가 석등, 문인석, 승탑 등과 함께 기증한 것으로<사진11>,³⁰⁾ 2단 대석 기단부 위에 우주와 4단 옥개받침이 조출된 탑신부를 올렸다. 이와 거의 흡사한 석탑으로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의 아미동 오층석탑과 연등사 오층석탑이 있다<사진12,13>. 연등사 오층석탑은 신축 이전 개관한 범어사 정보박물관에 현재 이전되어 있으며, 과거 적산가옥에 살던 신도가 연등사에 기증한 석탑이다. 이들 4기 석탑은 외형이 흡사한 사례로 모두 대석 기단 위

오층석탑으로 소개되고 있으므로, 연화대석과 상관없이 인조석으로 만들어진 석탑 혹은 층탑형 석등루으로 추정된다.

29) 『한국의 전통사찰-전통사찰 전수조사 보고서(2024(1))』(대한불교조계종, 2015)에서는 1970년대 석탑으로 소개되어 있다. 2024년 현 주지스님은 석탑의 건립연대를 대략 70년 전으로 추정하였으며, 경내 사적비(1979년)에는 1932년에 사리탑 등 5개의 탑을 증축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30) <부산일보> 1978년 4월 11일 기사.

에 오층 탑신부를 올리고, 탑신부에는 우주와 얇은 옥개받침이 조출되었으며, 상부에는 별도의 상륜부가 놓여있다. 아산 온양민속박물관에도 거의 흡사한 오층석탑이 있다.³¹⁾ 근대시기에 가장 많이 건립된 석탑 양식은 대석기단에 우주와 옥개받침이 생략된 탑신부, 최상부 옥개석에 보주형으로 조출한 상륜부를 갖춘 것이다. 그에 비해 위 4기의 석탑처럼 대석기단부와 탑신부에 우주와 옥개받침이 조출된 사례는 12여 기만 확인된다.³²⁾



〈사진10〉
영화사
오층석탑



〈사진11〉
부산시립박
물관
오층석탑



〈사진12〉
아미동
오층석탑



〈사진13〉
연등사
오층석탑



〈사진14〉
경성대학교 석탑



〈사진15〉
대성사
묘지석
석탑

1970년대 최낙선씨가 기증한 경성대학교 오층석탑 2기와 석탑재 중 초층 탑신에 문비가 조각된 1기는 조선시대 석탑, 나머지 1기는 단층기단부에 우주와 옥개받침이 조출된 근대시기 석탑으로 추정되지만 모두 일부 부재가 혼재되어 있으며 현대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31) 엄기표는 부산박물관, 동아대, 온양민속박물관의 오층석탑이 같은 장인에 의해 설계·시공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친연성을 보여주는 것에 주목하며, 이들을 근대기 석탑 중에서 정연한 이미지와 안정된 외관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엄기표(2020), 앞의 글, 231쪽).

32) 상륜부의 양식을 제외하고 공포를 옥개받침으로 포함시키면 이러한 유형의 석탑은 다음과 같다. 부산지역의 4기와 온양민속박물관 석탑, 서울 진관사 오층석탑(1908년), 광주 증심사 묘탑 2기(1914년, 1922년), 군위 극락암 칠층석탑(1931년), 남원 창덕암 삼층석탑(1933년?),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1937년), 울산 문수사 삼층석탑(?).

로 본고에서는 우선 논의로 두겠다<사진14>. 아미동 대성사의 일명 묘지석 석탑은 실제 순수한 석탑이라고 볼 수는 없다<사진15>. 대성사는 1963년 창건된 사찰로 석탑은 아미동 일본인 공동묘지의 석재를 재활용하여 제작한 것이다. 애초에 석탑 부재는 아니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석재를 현대에 와서 탑의 형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임의로 근대시기 석탑에 포함시켰다. 이들 근대시기 석탑은 다음 장에 이어 개방성과 보수성으로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Ⅲ. 근대시기 석탑의 특징

1. 개방성

남한으로 한정하여 필자가 대략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대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탑은 130여 기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건립연대를 밝힐 수 있는 사례는 40여 기에 불과하고, 19세기 말은 조선후기와도 중첩되기 때문에 실제 ‘근대’라는 시기를 건립연대로 분명히 밝힘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조선전기 이후 석탑 건립이 급감하였고, 조선후기 석탑은 그 연구도 전무한 상태이며, 조선후기의 연장선상에서 건립된 근대시기 석탑은 지금까지 왜색이라는 시선에 묶여 체계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도 부족했다. 하지만 근대시기에 건립된 석탑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이들 석탑의 특징 및 유형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부산지역 근대시기 석탑을 개방성과 고유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우선 개방성이라는 측면은 일본의 석탑 및 석조물의 영향을 받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선의 석탑 조영에 있어 외부적인 영향에 따른 결과를 의미한다. 현재 근대시기 석탑에 관한 연구성과로는 엄기표 선생의 논문이 유일하며, 해당 논문에서 그는

근대시기 석탑을 전통모방형, 계승변화형, 혼합형, 일본형, 기타형으로 구분하였다. 전통모방형은 우리나라 전통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 근대시기에 가장 많이 건립된 유형인 계승변화형은 전통을 계승하는 바탕에서 근대시기의 석조물의 변화된 요소를 반영한 것, 혼합형은 전통 계승 속에서 일본 석탑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 일본형은 순수한 거의 일본식으로 정의하였다.³³⁾

〈표3〉 부산지역 근대시기 석탑 유형

유형	명칭
일본형	금강공원 십삼층석탑
일본형	동래별장 별관 실내 십삼층석탑
일본형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인조석재
절충형	금정사 칠층석탑
절충형	범어사 칠층석탑
절충형	중구문화원 오층석탑
순수형	동래별장 오층석탑 2기
순수형	영화사 오층석탑
순수형	부산시립박물관 오층석탑
순수형	동아대학교 아미동 오층석탑
순수형	연등사 오층석탑
순수형	구덕문화공원 오층석탑
기타형	불곡사 칠층석탑
기타형	대성사 묘지석 석탑

필자는 엄기표 선생의 견해를 수용하되 전통을 바탕으로 삼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계승변화형’과 ‘혼합형’을 ‘전통계승발전형’으로 묶어 다시 ‘순수형’과 ‘절충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별하겠다. 전통계승발전형에서 내부적 변화로 조선의 전통적인 석탑을 비롯하여 석조물의 조영에 영향을 받은 것은 순수형(내부적 변화)으로, 여기에 더해 외부적 변화로 일본 석조물의 영

향을 수용한 것을 절충형(내부적 변화+외부적 변화)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절충형과 일본형을 통해 부산지역 근대시기 석탑의 개방적 측면을 해석한다면, 절충형은 대개 기단부의 장식적 요소와 상륜부에서, 일본형은 일본 석탑의 유입에서 찾을 수 있다.

근대시기 석탑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1단이나 혹은 2단의 대석을 이용한 간략화된 기단부, 우주의 생략, 옥개받침의 약화 혹은 생략, 낙수면의 구배가 약하고 처마의 단면이 두툼해서 둔중한 느낌의 옥개석, 보주형 상륜부, 5층 이상의 다층 석탑의 증가, 규모의 축소와 세장함, 탑

33) 엄기표(2020), 앞의 글, 259~260쪽.

신의 액면과 범자 조식 등을 꼽을 수 있다.³⁴⁾ 특히 한국 석탑사에서 기단부는 가장 보수적인 부분으로, 7세기경 석탑의 발생부터 조선전기까지 일부 단순화되기는 하지만 가구식 기단을 고수한다. 반면 근대시기 석탑은 20여 기 가량 되는 사례를 제외하면 더 이상 가구식 기단을 찾아볼 수 없다.³⁵⁾ 이러한 간단한 대석 기단부의 성행에 일본의 석탑 조형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일본 석탑은 전통적으로 한국과 달리 層塔, 五輪塔, 寶篋印塔, 多寶塔, 寶塔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오륜탑과 보협인탑이 주류로 오늘날까지 오륜탑의 수량이 가장 많다. 우리나라 석탑과 비교가 가능한 층탑에 한정에서 이야기하자면, 대석 기단부, 옥개석에서 대개 받침의 생략 또는 목조건축의 표현, 치석방식으로 는 탑신과 옥개석의 별석식보다는 옥개석 상부에 탑신을 조출하는 조출식이 다수이며, 그중에서 주로 낮은 탑신에 마치 옥개석만 중첩된 밀침탑이 유행했다.³⁶⁾

하지만 근대시기 석탑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대석 기단을 비롯하여 대표적인 특징은 이미 조선후기, 그리고 19세기말로 편년되는 석탑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대석기단은 1703년 청주 보살사 오층석탑에서 초층 탑신을 받는 복련장식 대석으로 나타나며, 1887년 서울 도선사 칠층석탑, 19세기말 광주 증심사 칠층석탑과 전주 전북대학교 칠층석탑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경술국치 이후 한반도에 일본불교와 함께 일본인의 대거 유입은 대석 기단의 직접적인 발생 요인이 아니라 보다 선호되기 유리한 환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탑신에서 우주의 생략은 조선전기,

34) 엄기표(2020), 앞의 글, 245쪽.

35) 근대시기 석탑 중 가구식 기단부를 갖춘 석탑으로 합천 해인사 용성선사 승탑, 진주 의곡사 삼층석탑, 김천 청암사 다층석탑은 이중기단, 범어사 칠층석탑은 삼중기단, 그 밖의 군산 은적사 오층석탑, 익산 해봉원 오층석탑, 익산 이리초 오층석탑, 완도 김양제고택 삼층석탑, 포항 관음사 석탑 2기, 의령 문수사 칠층석탑은 단층기단이다. 연대가 다소 분명하지 않으나 근대시기 석탑으로 소개되는 사례로 서울의 세종대학교 삼층·오층석탑, 숙명여고 오층석탑, 연세대 오층석탑, 메이필드호텔 오층석탑, 금강암 오층석탑, 범성사 오층석탑과 안동 경북도청 오층석탑은 단층기단이다.

36) 전지혜, 「백제양식석탑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228쪽, 230~232쪽.

그리고 그보다 앞서 이미 선행사례가 다수 있다. 옥개받침의 생략은 조선중기의 남양주 팔당분교 오층석탑³⁷⁾, 조선후기의 의령 수도사 석탑,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삼층과 오층석탑³⁸⁾, 증심사와 전북대학교 칠층석탑의 사례가 있다.

<표4> 절층형 석탑 상륜부(범어사, 금정사, 중구문화원)



부산지역 근대시기 석탑 중 절층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석탑은 범어사 칠층석탑, 금정사 칠층석탑, 중구문화원 오층석탑으로, 모두 1930

년대에 건립되었다. 공통적으로 상륜부는 전통석탑의 상륜부와는 다소 이질적이며, 근대시기 유행한 보주형 상륜과도 구별되는 일본 석탑의 상륜부에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된다<표4>. 보주형 상륜은 조선시대 석조물이 후기의 승탑 건립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능묘 석조물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배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석종형 승탑, 장명등의 상륜과 흡사하다. 반면 중구문화원 오층석탑은 전형적인 일본식 상륜에 해당한다. 금정사 칠층석탑의 경우 기단부와 매층 탑신에 명문을 비롯한 다양한 문양을 조식한 것도 일본 석탑의 영향이다.³⁹⁾

범어사 칠층석탑은 특히 기단부의 장식적인 측면에서도 일본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삼층의 가구식 기단으로 삼층 중석 받침석에 亞字

37) ‘국가유산청’ 도난 국가유산 정보에 따르면 2000년도에 도난당했으며 석탑의 건립 연대는 조선중기라고 한다. 기단부는 가구식의 단층기단이며, 탑신부에 우주와 옥개받침이 생략되었다. 특히 옥개석 상부에 일부 탑신을 조출하고 그 위에 별개의 탑신을 이중으로 적층했다.

38) 안내판에 따르면 본래 구례군에 소재한 석탑으로 1986년 고려대학교 박물관으로 이관되었으며, 석탑의 편년은 조선후기로 기재되어 있다. 두 석탑은 모두 가구식의 단층기단이며, 옥개받침은 생략되었다. 일부 탑신은 후보물로 우주가 조출되었다.

39) 엄기표(2020), 앞의 글, 246쪽.

形⁴⁰⁾ 안상과 그 위로 마치 일본 석탑의 주류인 보협인탑 옥개석 네 모서리의 馬耳形과 유사한 장식을 사방으로 세웠다<사진16>. 이처럼 2,3단의 호형 모서리 장식은 현재까지도 일본의 정원 조경으로 다수 제작되는 층탑형 석등롱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일본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인근 동래 호텔농심에 남아있는 1907년 제작된 층탑형 석등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사진17>. 근대시기 석탑 중 양산 통도사 오층석탑(1920)과 청도 신문사 오층석탑(1924)도 이와 유사한 장식과 아자형 안상을 볼 수 있다<사진18>. 아자형 안상은 조선시대 능묘 석조물에서 유행한 조식으로 고유성 부분에서 살펴보겠다. 석탑 주위에 난간석을 설치하는 것은 일본식 의장이며⁴¹⁾ 경내 삼층석탑⁴²⁾과 마찬가지로 범어사 칠층석탑 역시 초창 당시 난간석을 둘렀다<사진20>⁴³⁾.

기단부 면석에 장식된 연화문은 일제강점기에 공사가 진행된 관음전과 현 지장전 기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사진19>. 일견 일본 석탑의 주류인 보협인탑의 탑신에서 범자를 새긴 月輪을 받치는 蓮華座를 연상시키지만, 오히려 마애여래좌상의 연화좌와 친연성을 갖는 것으로 마치 앙련과 복련을 맞붙인 형태이다. 우리나라 석탑의 경우 서울 진관사 오층석탑(1908)과 청룡암 칠층석탑(1922~1934)의 탑신에 장식된 연화문과 가장 흡사하다. 따라서 범어사 칠층석탑은 난간석의 설치와 기단부 마이형 장식, 그리고 상륜부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석가여래사리탑비」에서 확인되는 일본인 석장이 참여한 결과일 것이다. 인위적인 훼손으로 직책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비명에

40) 특히 능묘 석조물인 장명등과 망주석에 흔히 볼 수 있는 조식이며, 상부가 평평하고 옆으로 긴 장방형의 안상이다. 平頂形 眼象(방보인), 亞字形 眼象(송지현) 등으로 명명하고 있다.

41) 이미나, 「개항이후 일본불교의 침투와 한국 사찰건축의 변화」,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14쪽.

42) 삼층석탑의 난간석과 총독부 표지석은 2009년 철거되었다. 1937년 10월 설치된 삼층석탑의 난간석은 당시 경내에 칠층석탑(1936.봄~1937.겨울)의 건립 공사 중에 설치되었음에도 두 석탑의 난간은 다른 형태로 제작되었다.

43) 사진 출처는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참조.

따르면 당시 일본인 장인을 비롯하여 4명의 한국인이 석탑 건립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⁴⁴⁾



〈사진16〉 범어사
칠층석탑 3층 중석
받침

〈사진17〉 호텔농심
층탑형 석등롱

〈사진18〉 통도사
오층석탑 기단부

〈사진19〉 범어사
칠층석탑 기단부
면석 연화문 장식



〈사진20〉 1938년 범어사 칠층석탑 전경

범어사 칠층석탑은 「석가여래사리탑비」를 통해 건립연도와 경위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근대시기 대표적 석탑이다. 근대시기 석탑 중 제작에 참여한 장인이 분명하게 확인된 사례는 10기가 있다.⁴⁵⁾ 이 중 판독이

44) 「석가여래사리탑비」 “...石匠 中村秀雄 中村勇夫 ○席 松尾平○郎 ○○ ○○坤 金鍾變 金相贊 金喆濟”

45) 통도사 오층석탑(최하단 대석 ‘石工’)과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석탑, 범어사와 금정사 칠층석탑, 마산 정법사 오층석탑을 제외한 나머지 석탑의 참여 장인은 모두 한국인으로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순천 선암사 화산대사사리탑(1917년경), 청도 신둔

어려운 통도사 오층석탑을 제외하면 범어사 칠층석탑, 금정사 칠층석탑, 마산 정법사 오층석탑은 비문을 통해 모두 일본인이 건립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다. 단 범어사와 금정사는 한국인의 이름도 함께 각자되어 있으나 정법사⁴⁶⁾는 순수하게 일본인 장인의 이름만 기록으로 남겼다. 이들 3기 석탑은 모두 일본의 영향을 일부 받은 석탑에 해당하며, 나머지 석탑은 참여 장인이 모두 한국인이며 순수형에 가깝다. 따라서 정법사의 경우도 확인되는 장인은 일본인이지만 탑신부는 전통석탑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시기에 한반도에서 석탑 제작의 현장 실무자는 한국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형 석탑에 해당하는 밀침탑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것은 마치 탑신이 생략된 채 옥개석만 적층된 외양으로 일본의 층탑 중 다수를 차지한다. 이 밀침탑은 현재까지 부산지역에서만 유일하게 2기가 확인되므로, 부산지역 근대시기 석탑의 개방적인 특징을 대표하는 사례일 것이다. 금강공원 십삼층석탑과 동래별장 실내 십삼층석탑이 이에 해당한다. 연구자에 따라 일본의 층탑형 석등롱을 일본형 석탑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층탑형 석등롱은 화창이 개설된 석등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의 석등은 16세기 다도문화의 발전에 따라 일본 개인 정원의 조경물로 대거 제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일본 사찰의 전통적인 석등롱인 藏手形과도 성격을 달리한다.⁴⁷⁾ 한반도 내에서도 다수의 사례가 확인된다. 부산의 2기의 밀침탑은 불교조형물이 아닌 개인 정원의 조경물로 일본인 석공에 의해 제작되었을 것이다. 즉 일본탑에 해당하는 밀침탑은 한반도에서 유행하지 않았고, 같은 맥락에서 일본 석탑의 주류인 오류탑과

사 오층석탑(1924년), 김제 조양사 칠층석탑(1928년), 서울 조계사 칠층석탑(1930년), 청도 적천사 오층석탑(1947년).

46) 신용철, 「마산포교당 정법사 大報父母恩重塔의 고찰」, 『불교문화재연구』3,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2022, 15~16쪽. 탑의 상륜부에 일본의 조경용 석등롱에 해당하는 雪見型 석등롱과 흡사한 부재를 올렸다.

47) 이미지, 「고보리 앤슈 정원의 공간조형 특징」, 『일본학보』122, 한국일본학회, 2020, 300쪽; 김해경 외2, 「현대 외부공간에 도입된 일본석등의 재현 양상에 관한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25-4, 한국전통조경학회, 2007, 115~117쪽.

보협인탑 역시 한반도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근대시기 석탑의 건립에 있어서 나타난 큰 변화 중 하나는 석탑이 건립되는 장소에도 있다.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찰 경내를 중심으로 불교의 석조조형물로 석탑을 건립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다. 일본은 16세기 다도문화의 유행과 함께 개인 정원의 장식물로 석등과 석탑 등 다양한 석조물을 활용했다. 일본인들의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는 일제강점기에 대거 일본인이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 조선에 산재한 석탑, 석등, 승탑 등으로 개인 정원을 장식하기에 이른다. 그뿐만 아니라 직접 제작자로 제작도 했을 것이다. 따라서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근대시기 석탑은 불교 석조물과 조경용으로 구분이 필요하겠으나 본고에서는 이 부분은 다루지 못하였다.

부산지역의 근대시기 석탑을 개방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일본장인의 활동이 두드러진다는 점과 유일하게 일본 탑에 해당하는 밀첨탑이 제작되었다는 점, 그리고 금정사와 중구문화원, 범어사 석탑에서 장식적인 요소로 일부 일본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인의 대표적인 관광지에 해당하는 온천장과 범어사가 위치한 금정산을 중심으로 근대시기 석탑이 밀집되어 있었다. 특히 부산지역의 근대시기 석탑의 사례에서 일본 장인이 관여했음에도 일본의 영향이 일부 장식적인 요소에 그친 것과 일본의 밀첨탑이 조선 땅에 유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일본이 주도한 조탑술로 근대시기 석탑이 제작된 것도 아니며 더욱이 근대시기 석탑이 단순히 일본풍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2. 고유성

고유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조선 석조물의 내부적인 변화에 주목하여 전통석탑을 계승한 양상과 능묘 석조물과의 비교를 통한 근대시기 석탑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물론 석탑을 조성하는 데 있어 타 석조물과의 교

류를 개방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일본의 영향을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개방성의 측면으로 두었기 때문에 내부적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게다가 석탑을 조성하는 데 있어 타 석조물과의 교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것은 석탑의 건립에 석등, 승탑, 불상대좌 등과 일정한 교류가 있었으며, 장명등이 처음 만들어질 때 고려말, 조선초 승탑의 영향을 받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⁴⁸⁾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까지 석조물의 중심이 석탑을 중심으로 한 불교 석조물이었다면, 조선시대는 불교 석조물의 제작이 줄면서 오히려 능묘 석조물이 확대되었고, 당시 석탑의 조영도 그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⁴⁹⁾

〈표5〉 부산지역 순수형 석탑 상륜부
(동래별장, 구덕문화공원, 부산박물관, 연등사, 아미동, 영화사)



특히 근대시기 석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능묘 석조물과의 교류 양상은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 석탑을 대개 왜색으로 단순화시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기조와 달리 실제 능묘

석조물과의 친연성을 갖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일례로 조계사 칠층석탑(1930)은 규모의 왜소함과 왜색이라는 이유로 2009년 새로 제작한 팔각십층석탑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후원으로 옮겨졌다. 일본의 영향을 단순히 왜색으로 부정하는 것에 나아가 한국 전통 석조물의 조형술을 왜색으로 오인하는 것이 현재 근대시기 석탑을 바라보는 시선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순수형과 절충형을 통해 부산지역 근대시기 석탑의 고유성을 살펴보

48) 김민규, 「朝鮮 王陵 長明燈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9쪽, 101~102쪽.

49) 엄기표(2015), 앞의 글, 642쪽.

졌다. 순수형은 동래별장 오층석탑 2기, 구덕문화공원 오층석탑, 부산박물관 오층석탑, 연등사 오층석탑, 아미동 오층석탑, 영화사 오층석탑이 있다. 모두 처마 단면이 두툼하고 옥개석 낙수면의 구배가 완만하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후기로 편년되는 청주 보살사 오층석탑, 문경 김룡사 삼층석탑, 의령 수도사 석탑에서도 이미 나타난다. 동래별장과 구덕문화공원 오층석탑은 대석 기단에 탑신부는 우주와 옥개받침이 생략된 근대시기 가장 대표적인 석탑의 양식에 속하는데, 앞서 언급하듯이 대석 기단부, 우주와 옥개받침의 생략은 조선후기와 19세기말에 이미 나타난 현상이다. 나머지 순수형은 모두 대석기단이지만 약화된 옥개받침과 우주가 조출되어 있어, 전통석탑의 양식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근대시기 석탑 중 이러한 유형은 12기 정도에 불과한데, 부산지역에는 4기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근대시기에 주류를 차지하는 대석 기단부를 수용한 변화를 겪었지만, 과거 전통석탑에서 수매의 석재로 결구된 기단부에 비해 단일석을 사용한 탑신부는 비교적 전통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 상륜부 역시 4기 석탑은 별석형으로 방형 받침 위에 2단의 보주형으로 동일하며, 동래별장 오층석탑은 최상부 옥개석과 단일석으로 제작된 보주형, 구덕문화공원 오층석탑 역시 단일석이지만 2단 보주형으로 차이가 있다. 모두 조선후기 대거 건립되는 석종형 승탑의 상륜, 그리고 장명등의 옥개석 상부에 놓이는 圓首, 망주석 柱頭의 원수와 유사하다<표5>.

절충형으로 분류했던 금정사 칠층석탑은 옥개석의 구배는 다소 이색적이지만 정육면체에 가까운 탑신을 적층한 석주형의 탑신은 도선사 칠층석탑(1887), 수덕사 칠층석탑(1931), 이화여자대학교 오층석탑(근대) 등 사례가 다수 있다. 탑신의 액면 조식도 특징적이며 이를 일본 석탑의 영향으로 보기도 하는데, 일본의 경우 특히 보협인탑, 보탑, 다보탑의 기단과 탑신에서 액면 조식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능묘 석조물의 영향을 받은 조선전기 석탑에서 액면 조식은 이미 유행하였다.⁵⁰⁾ 게다가 정육면체 탑신은 19세기 이후 제작된 사각장명등 體石의 상대석과 흡사하다는 점에

50) 송지현, 앞의 글, 114~115쪽, 133쪽.

주목해야 한다<표6>.⁵¹⁾ 따라서 금정사 석탑의 탑신 역시 능묘 석조물 중에서도 장명등의 조영술이 적극적으로 채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6> 석탑 탑신과 장명등 체석의 상대석 비교



범어사 칠층석탑은 앞서 상륜부와 기단부의 일부 장식적 요소에서 일본의 영향을 살펴 보았다. 하지만 근대시기 석탑 중 가구식 기단부가 희소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통적인 가

구식 기단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탑신부에서는 전통모방형에 가까울 정도로 전통을 고수한 사례에 해당한다. 탑신부를 먼저 보자면 탑신과 옥개석은 각각 별석이다. 모두 단일석을 사용했으나 3층까지 옥개석은 2매의 석재로 결구되었다. 탑신에는 우주가 옥개석에는 5단의 받침이 조출되었다. 물끓기흙은 없으며 옥개석 위로 2단의 각형받침도 조출되었다.

근대시기 석탑 중 탑신부에서 우주와 옥개받침이 조출된 사례는 28여 기에 그친다. 이 중 가구식 기단부까지 고수한 사례가 16여 기인데 해인사 용성선사 승탑과 청암사 다층석탑이 이중기단, 범어사 칠층석탑은 삼중기단으로는 유일하며<사진23>, 나머지는 단층기단이다. 탑신부에 한정하면 통도사 오층석탑도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사진21,22>. 정법사 석탑은 상륜부를 비롯하여 우주가 생략된 탑신에 범자를 새겨 넣은 원문 등은 일본 석탑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통석탑의

51) 19세 이후에 제작된 장명등은 전체적으로 장식성이 강조되고 체석의 상대석이 입방체에 가깝게 변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릉 석물조각사Ⅱ』, 2017, 317~318쪽). 현재 고종 홍릉의 장명등은 구룡릉의 것을 그대로 옮겨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1909년 유리건판(‘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소장품 번호:건판000216’)에 따르면 새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52) 1860년대 조성. 국립문화재연구소(2017), 앞의 글, 318쪽.

53) 1897년 조성.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소장품 번호:건판000216’

탑신부에 속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범어사 칠층석탑에서 기단부의 일부 장식적인 요소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장식적인 부분을 꼽으라면 삼층의 기단 갑석과 중석 받침이다. 갑석으로 각형이 아닌 모를 죽인 호형부재를 사용한 것도 특징적이며, 마이형 장식의 중석 받침은 마치 별도의 난간을 얹어 놓은 듯한데, 통도사 오층석탑과 흡사하다<사진24>.

「석가여래사리탑비」에는 범어사 칠층석탑 건립에 참여한 장인으로 일본인과 한국인이 함께 각자되어 있다. 하지만 석탑 조영에서 일부 장식적인 측면에서만 일본의 영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탑 건립의 실무를 담당하고 주도한 것은 한국인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는 후기의 승탑 건립을 제외하면 불교 석조물의 침체기였고, 오히려 능묘 석조물이 활발히 조성되었다. 그 결과 능묘 석조물에 익숙한 장인에 의해 석탑의 조영도 능묘 석조물의 영향을 받기 유리한 상황이었을 것이다.⁵⁴⁾ 조선시대 전기 석탑에서 장식적 문양으로 적극 활용된 아자형 안상은 장흥 보림사 서승탑 남탑과 청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등 고려시대 승탑에서 시작되어⁵⁵⁾ 조선시대 능묘의 장명등과 망주석 등의 장식문양으로 자리 잡았다. 범어사 칠층석탑의 삼층 중석 받침의 호형부재 안의 아자형 조식도 역시 능묘 석조물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초창 당시 석탑 주위로 설치된 난간⁵⁶⁾의 童子石柱는 함께 철거된 대웅전 일대의 난간과 동일하다<사진25>. 조선시대 능묘 난간석의 동자석주는 대개 상하로 연잎을 배치한 장구형 모양으로 일견 범어사 석탑의 이색적인 동자석주를 떠올리게 한다. 또한 欄干石柱의 圓首 아래 양련, 복련과

54) 엄기표, 「朝鮮初期 己和大師 涵虛堂의 分舍利 石造浮屠에 대한 考察」, 『문화사학』25, 한국문화사학회, 2006, 149쪽, 164쪽; 이순영, 「조선 초기 가평 현동사 삼층석탑에 관한 연구」, 『아시아문화연구』18, 가평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242쪽, 253쪽.

55) 송지현, 앞의 글, 115쪽, 132~133쪽.

56) 석탑 건립 당시 설치했던 난간석은 현재 철거 되었으며, 사방으로 설치한 사방신과 4개의 석탁은 2023년 개관한 성보박물관에, 4기의 석등은 구성보박물관 앞에 전시되어 있다.

도 친연성을 보인다<사진26>⁵⁷⁾. 탑 사방으로 기단 앞에 설치한 4개의 石卓도 香爐石 혹은 祭酒瓶石을 닮아 능묘 석조물을 연상케한다<사진 27,28>⁵⁸⁾.



<사진21> 범어사
칠층석탑 탑신부



<사진22> 통도사
오층석탑 탑신부



<사진23> 범어사 칠층석탑
기단부



<사진24> 통도사 오층석탑
기단부



<사진25> 범어사
칠층석탑 난간
동자석주



<사진26>
寧陵 석주



<사진27> 범어사
칠층석탑 석탁



<사진28> 閔升鎬墓
제주병석

근대시기 석탑 중에서도 범어사 칠층석탑은 한국 전통석탑의 고유성을 살펴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석탑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제의 잔재라는 부정의 측면에 따라 철거 위기에도 몰린 적이 있으며 현재 구 정보박물관 주차장 한쪽 귀퉁이에서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대

57) 국립문화재연구소(2017), 앞의 글, 224쪽.

58) 경기도박물관, 『경기묘제석조미술下』, 2008, 235쪽.

개 석탑의 건립을 범어사 주지 車相明의 친일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탑의 실제 발원자는 전 주지인 吳梨山으로 그가 갑자기 죽어 후임자 차상명이 완공한 것이다.⁵⁹⁾ 또한 「석가여래사리탑비」에는 일제 찬양에 대한 내용도 없다. 오히려 비명의 작성자가 韓龍雲이며, 비명 뒤에는 삼일운동의 주역인 승려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⁶⁰⁾ 따라서 범어사 칠층석탑은 일부 장식적인 요소를 제외하면 오히려 전통석탑의 고유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점과 탑의 건립연대와 건립에 참여한 장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비명이 함께 보존되어 있는 점은 근대시기 석탑 연구의 중요한 가치를 상징한다. 범어사는 예로부터 한국 전통사찰로 9세기경 창건되었으며, 일제강점기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했다. 또한 31교구 본산의 하나이자 영남의 3대 사찰이라는 사격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석탑 양식을 근대시기까지 잘 고수했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통도사의 오층석탑과 통도사 포교당 정법사의 오층석탑⁶¹⁾, 해인사 용성선사 승탑도 마찬가지이다.

근대시기 석탑은 조선시대 유행한 능묘 석조물과 친연성이 크다고 전제하였다. 근대시기 석탑이 능묘 석조물과 갖는 친연성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진주 의곡사 삼층석탑을 꼽을 수 있다<사진29>. 사찰 중창과 함께 1938년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의곡사 삼층석탑은 지대석 위에 2단의 저석을 쌓고 그 위에 2층의 가구식 기단부를 세웠다. 중석에 우주는 있으나 탕주는 생략되었고, 갑석은 오히려 전각의 반전을 통해 옥개석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전각형 갑석은 고려시대부터 소수의 사례가 있다. 탑신은 마치 능묘의 상석 앞에 놓이는 향로석 혹은 사각장명등의 雲足形⁶²⁾ 하대석과 동일하게 치석

59) 「석가여래사리탑비」 “...梵魚寺知寺梨山大爲歡喜誓願起塔不幸以命未果遽蓮圯而後知寺靈湖繼其志丙子春始工起七層塔翌年冬竣功以安舍利...”

60) 범어사정보박물관, 부산근대역사관, 『범어사 3·1운동과 명정학교』, 2019, 146~149쪽; 김광식, 「만해 한용운과 범어사」, 『세계불학』3, 세계불학원, 2023, 217쪽.

61) 마산 정법사의 大報父母恩重塔은 2014년 중창불사 당시 진전자연휴게소(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로 반출되었다가 2021년 다시 사찰로 환수되었다.

62) 간략히 ‘구름 모양의 다리’로 해석되며, 석탑에서는 주로 雲脚形, 장명등에서는 雲足

한 부재를 사용했고, 그 위로 얇은 4단의 옥개받침이 조출된 옥개석을 적층했다. 상륜부는 두 부재를 적층했는데, 아래로부터 상석의 고석, 장명등의 원수에 해당하는 보주를 닮았다. 게다가 기단부의 최하부 저석과 접해있는 석재는 무덤 앞의 상석을 연상시킨다<표7>. 즉, 의곡사 삼층 석탑은 기단부부터 상륜부까지 근대시기 석탑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능묘 석조물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⁶³⁾



<사진29> 의곡사
삼층석탑

<표7> 능묘 석조물과 의곡사 석탑 비교⁶⁴⁾

능 묘 석 조 물	床石	香爐石	鼓石	圓首
의 곡 사 석 탑	기단부	탑신	상륜부(하)	상륜부(상)

오늘날 근대시기 석탑은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전통석탑과는 별개의 조형물로 여겨져 왔으며, 단순히 왜색이

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조선시대 들어와 유교와 불교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조형물 받침부에 표현된 문양이다(엄기표(2015), 앞의 글, 638쪽; 김민규, 앞의 글, 60쪽).

- 63) 그 밖에도 1911년에 6,7층을 중수한 당진 영탑사 칠층석탑도 7층 탑신은 향로석 또는 사각장명등의 운족형 하대석, 7층 옥개석은 장명등의 옥개석과 흡사하다. 도선사 칠층석탑 역시 상륜부가 경내에 세워진 장명등 형태의 석등 상륜과 동일하다.
- 64) 상석(朴元度(1626~1690) 묘, ‘디지털화성시문화대전’), 고석(全溪大院君(1785~1841) 묘, 『경기묘제석조미술도판편下』(경기도박물관, 2008, 411쪽)), 향로석(李映成(1659~1722) 묘, 『경기묘제석조미술도판편下』(경기도박물관, 2008, 461쪽)), 원수(孝宗 寧陵, 『조선왕릉 석물조각사Ⅱ』(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287쪽)).

라는 오명으로 덧씌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근대시기 석탑이 일본의 영향을 일부 받았다고 해서 부정적인 유산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 또한 근대에 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왜색으로 단정할 수 있을까. 일례로 조계사는 일제강점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사찰로 경내 칠층석탑은 「釋迦世尊舍利塔碑」(1930)에 따르면 석장을 불려한 달이 채 안 돼 완공되었고, 공사의 우두머리는 ‘片手 洪致雲’이다.⁶⁵⁾

<표8> 구룡릉 장명등과 조계사 석탑 비교



양식을 보자면 삼단의 대석을 계단식으로 올리고 그 위에 운족이 새겨진 대석과 난간석을 올렸다. 운족 안에는 오마니반메흠의 육자진언이 새겨져 있으며, 매 층 돌출된 난간부와 십자각 옥개석은 장식미를 강하게 보여준다.⁶⁶⁾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석탑이 보여주고 있는 능묘 석조물과의 친연성이다<표8>⁶⁷⁾. 기반부 운족형의 대석은 향로석 또는 사각장

65) 「釋迦世尊眞身舍利塔碑」 “...片手 洪致雲 刻字 姜榮慶”

66) 난간과 지붕을 통해서 경천사지와 원각사지 십층석탑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며, 근대시기 석탑으로는 진관사 계열의 석탑으로 소개되고 있다(엄기표(2020), 앞의 글, 220쪽).

67)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진관 소장품 번호:진관000216’

명등의 하대석을 연상케 한다.⁶⁸⁾ 특히 운족은 사각장명등 하대석의 필수 요소로,⁶⁹⁾ 1930년 준공식 기사의 사진을 보면 당시 함께 건립된 2기의 사각장명등에서도 운족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30>70). 매 층 난간의 동자주 역시 19~20세기 왕릉 난간의 동자석주와 닮았으며, 고종 연간에 제작된 경회루 난간 동자석주와 가장 흡사하다.⁷¹⁾ 십자각 옥개석 역시 18세기 이후의 사각장명등과 흡사하다. 보주형의 상륜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옥개석 정면을 장식하는 오얏꽃이 당시 대한제국 황실 문양인 것을 감안한다면, 조계사 석탑 건립 당시 왕릉의 석조물을 제작했던 장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립시기만을 토대로 조계사 칠층석탑 역시 왜색으로 해석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석탑은 삼국시대 말기에 해당하는 7세기경 건립이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1,300년이 넘는 세월을 넘어 오늘날까지 그 건립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석탑 연구는 고려시대를 정점으로 막을 내리고 조선후기 이후의 석탑사는 거의 단절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승유역불이라는 조선시대의 정치적인 상황과도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근대시기의 다수를 점유하는 일제강점기에 따른 왜색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조선시대 석탑 건립이 감소한 현상에 더해 일본불교에 따른 조선불교의 중흥과 더불어 석탑이 건립되었고, 그 결과 전통보다는 왜색의 시선으로 근대시기 석탑을 보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68) 무덤 앞의 향로석은 왕릉을 제외하고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되며, 18세기부터 향로석과 장명등 모두 4각 평면이 주류를 형성한다(정해득, 『朝鮮時代 京畿地域 墓祭石物 研究』, 『조선시대사학보』51, 조선시대사학회, 2009, 68쪽, 82쪽; 김지연, 「조선 정릉 사각 장명등 양식의 원류와 전개」, 『문화재』43-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41쪽.). 조계사 석탑의 기반부는 1937년 건립된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의 기반과 가장 흡사하다.

69) 김지연, 앞의 글, 48쪽; 국립문화재연구소(2017), 앞의 글, 254쪽.

70) <동아일보> 1930년 9월 15일 기사.

71) 국립문화재연구소(2017), 앞의 글, 225~229쪽.

하지만 일본의 영향을 일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왜색이라는 오명의 석탑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면서 근대시기 석탑은 전통석탑의 고유성을 잘 계승하고 있었으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일부 일본의 영향을 받았으나 능묘 석조물과의 친연성을 가지면서 발전해 나갔다. 추후 보다 확장된 조선시대 석조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근대시기 석탑의 양식 등은 새롭게 해석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사적으로 덧씌우는 친일이라는 명제를 석탑사에 단순히 부합시킬 수 없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한국 석탑사의 일부 변화로 개방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 범어서 칠층석탑은 탑비명으로 건립연대가 분명하고, 석탑의 양식 역시 일부 장식적인 요소를 제외하면 오히려 한국 전통의 석탑을 잘 계승하여 보존한 사례로 그 가치는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한국 석탑에 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 고유섭 선생을 시작으로 100여년을 거쳐왔다. 그동안 선학들은 미술사, 건축사, 역사학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한국 석탑의 변천사를 밝혔다. 반면 지금까지 필자를 비롯하여 대개의 연구자들은 근대시기 석탑을 연구대상으로도 인식하지 않았다. 막연히 전통석탑과는 다른 부류의 석탑, 일본이 만든 석탑, 역사성을 갖지 못한 하나의 조형물로 치부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근대시기 석탑에 관한 연구가 오늘날까지 단 한 편에 불과한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근대시기 석탑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에 이르렀다. 근대시기 석탑 연구는 당연히 조선시대 특히, 조선후기 석탑으로부터 자료 발굴이 시작되어야 하기에 조선후기 석탑의 자료를 먼저 모았으며, 이어서 근대시기 석탑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중 부산이라는 지역을 먼저 표본으로 선정하여 해당 논문을 기획

하게 되었다. 부산은 첫 개항지이며, 일본불교의 첫 포교소가 창립된 역사성과 일본인 밀집도가 가장 높았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근대시기 석탑 연구의 표본으로 삼을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부산지역 석탑을 임의로 분류하고 일본의 영향을 받은 측면은 개방성으로, 조선 석조술의 내부적 변화에 따른 측면은 고유성으로 구분하여 근대시기 석탑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근대시기 석탑의 대표적인 양식은 간략한 대석기단, 탑신부는 우주와 옥개받침의 생략, 보주형 상륜부를 꼽을 수 있다.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가구식 기단을 벗어난 대석기단이다. 이러한 근대시기 석탑은 일부 일본 석탑과 친연성을 갖는다. 하지만 시대적 요인으로 이러한 유형이 선호될 수 있었던 하나의 배경은 되겠으나 일본의 영향으로 발생한 석탑은 아니다. 이미 조선시대부터 이러한 석탑이 형성된 경위를 살펴보았다. 오히려 순수하게 일본 석탑인 밀첨탑이 조선 땅에 크게 유행하지 않았고 부산지역에서 유일하게 2기가 확인된 것은 한반도 전역에서 일본 석탑의 영향이 실제적으로 크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부산이라는 지역적 측면에서 밀첨탑의 건립은 근대시기 석탑의 개방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밖의 석탑의 사례에서는 전통적인 양식을 고수한 양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범어사 칠층석탑은 근대시기 석탑을 재해석하는 데 부산이라는 지역이 갖는 가치를 여실히 보여준다.

근대시기 석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요인 중 하나는 능묘 석조물과의 교류이다. 이 두 부류의 석조물에 대한 연계성 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왜색의 프레임을 씌어왔던 근대시기 석탑도 본래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고는 근대시기 석탑을 총괄하지 못하였으며 조선시대 능묘 석조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부족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추후 충분히 보완하여 근대시기 석탑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 이 논문은 2025년 02월 1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5년 02월 24일부터 03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5년 03월 1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1. 단행본

- 경기도박물관, 『경기묘제석조미술下』, 2008.
_____, 『경기묘제석조미술도판편下』, 2008.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릉 석물조각사Ⅱ』, 2017.
_____, 『경상남도의 석탑Ⅲ』, 2018.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의 전통사찰-전통사찰 전수조사 보고서(2024(1))』, 2015.
범어사성보박물관·부산근대역사관, 『범어사 3·1운동과 명정학교』, 2019.
부산시 금정구, 『梵魚寺 大雄殿 實測調査 報告書』, 1995.
부산시사편찬위원회, 『釜山市史 第4卷』, 1991.
인천광역시, 『근대 개항도시의 불교문화 자취』, 2019.
표용수, 『부산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선인, 2010.
홍순권, 『근대 도시와 지방권력』, 선인, 2010.

2. 논문

- 김경집, 「일제강점기 한국에 진출한 일본불교의 종파별 교세현황에 대한 연구」,
『보조사상』 65, 보조사상연구원, 2023, 193~221쪽.
김광식, 「만해 한용운과 범어사」, 『세계불학』 3, 세계불학원, 2023, 195~227쪽.
김민규, 「朝鮮 王陵 長明燈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지연, 「조선 정릉 사각 장명등 양식의 원류와 전개」, 『문화재』 43-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24~55쪽.
김해경 외2, 「현대 외부공간에 도입된 일본석등의 재현 양상에 관한 고찰」, 『한국 전통조경학회지』 25-4, 한국전통조경학회, 2007, 111~123쪽.
김윤환 외1, 「해양도시 부산의 일본인지역사회 형성과 종교」, 『해양도시문화교섭학』 11,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4, 121~159쪽.
김태훈, 「〈조선총독부관보〉로 보는 일본계 종교 유입의 전체도」, 『공존의 인간학』 4,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2020, 233~273쪽.
방보인, 「조선 후기 석탑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신용철, 「마산포교당 정법사 大報父母恩重塔의 고찰」, 『불교문화재연구』 3, 동북아

불교미술연구소, 2022, 5~29쪽.

송지현, 「朝鮮前期 石塔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이미자, 「고보리 엔슈 정원의 공간조형 특질」, 『일본학보』 122, 한국일본학회, 2020, 285~303쪽.

이순영, 「조선 초기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에 관한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18,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242쪽, 239~271쪽.

엄기표, 「朝鮮初期 己和大師 涵虛堂의 分舍利 石造浮屠에 대한 考察」, 『문화사학』 25, 한국문화사학회, 2006, 147~173쪽.

——, 「妙香山 普賢寺 8角 13層 石塔에 대한 고찰」, 『동악미술사학』 17, 동악미술사학회, 2015, 621~650쪽.

——, 「韓國 近代期 石塔의 建立 現況과 特徵」, 『문화사학』 54, 한국문화사학회, 2020, 215~256쪽.

윤석환, 「범어사의 가람배치 변화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정해득, 「朝鮮時代 京畿地域 墓祭石物 研究」, 『조선시대사학보』 51, 조선시대사학회, 2009, 55~88쪽.

전지혜, 「백제양식석탑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조원영, 「기장군 정관면 석탑사 탑재의 형식 분석」, 『항도부산』 27,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1, 312~357쪽.

최인택, 「개항기 오쿠무라 엔신(奥村圓心)의 조선포교 활동과 이동인」, 『부산의 도시 형성과 일본인들』, 선인, 2008, 416~466쪽.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옛님의 숨결, 그 정취를 찾아’(https://cafe.daum.net/moonhawje)’

Abstract

Current Status and Features of Stone Pagodas in the Modern Period in Busan

Jun, Ji-Hye

The history of stone pagodas in Korea has been studied mainly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when the standard stone pagodas began to be built for the first time, and the Goryeo period, when the number of stone pagodas increased dramatically.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construction of stone pagodas, a representative sculpture of Buddhism, plummeted in the aftermath of the advocating Confucianism and restraining Buddhism policy, and the number of pagodas reached only about 30. Later, in the modern period from the 19th century to the liberation of Korea, stone pagodas continued to be built, numbering more than 130. However, the modern era pagodas have been viewed as a product of Japanese colonial legacy and have been negatively regarded as 'Japanese style', and there has been little attempt to study them.

This paper aims to reveal the continuity of Korean traditional stone pagoda construction in the modern period, which has been neglected in the history of Korean stone pagodas, through the modern period stone pagodas in Busan. Busan was the first port to be opened, and the first Japanese Buddhist missionary temple to be established after the opening of the port, and it was the area with the highest concentration of Japanese peopl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number of modern-era stone pagodas is also the highest of any other region except Seoul. These factors mean that Busan's modern

stone pagodas, as the standard of modern stone pagodas distributed nationwide, are the most suitable to examine as a trend of modern stone pagodas.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stone pagodas in the Busan area were examined in two directions: openness in terms of external Japanese influences, and uniqueness in terms of internal exchange with Joseon stonework. In the area of uniqueness, particular attention was paid to the affinity with mausoleums stonework.

keywords :

Stone pagoda, Pagoda, Busan, Modern period, Beomeosa, Japanese stone pagoda, Buddhist pagoda